

북한개발소식

2024 NOV

11

통권 229호

이달의 주제

김정은 독자 우상화와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2)

북한뉴스

북한, 러시아 파병...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4 NOV



이달의 주제 :

김정은 독자 우상화와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김정은 독자 우상화와 우리의 기도
- 칼럼_1 09** 박성열_ 김정은의 독자 우상화 본격 추진 동향 및 전망
- 칼럼_2 15** 오일환_ 최근 김정은의 우상화 실태와 전망
- 칼럼_3 25** 강동완_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과 그 의미
- 탈북민 수기 29** 김열매 성도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 (2)
- 서평 33** 통일의 눈으로 애타란타를 다시 보다
- 북한뉴스 35** 북한, 러시아 파병... 국정원 "1만 2천명 규모, 1천 500명 이미 러시아에"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김정은 독자 우상화와 우리의 기도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24년 들어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독자 우상화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올 5월 21일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신관 준공식에서는 건물 외벽과 교실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의 것과 나란히 걸렸다. 북한 간부들이 가슴에 착용하는 초상휘장도 기존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과는 다른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이 등장했다. 김일성에게 사용되던 태양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김정은을 수식하는 용어로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며 기념하였으나 올해는 ‘4월 명절’ 등으로 축소되어 언급한 반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주체 조선의 태양’으로 지칭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당시 강조했던 김일성-김정일 주의도 이제는 위대한 김정은 주의, 위대한 김정은 시대로 바뀌었다.

북한의 최근 지도자 우상화 추세는 북한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특히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완화되고 중단되길 바라는 우리에게도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 강화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에 대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한다.



〈2019년 10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눈 덮인 백두산에서 승마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의 우상화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후계자로 나선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 정당성 확보가 절실했다. 그러다보니 김정은 우상화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는 할아버지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연출해 통치에 활용했다. 김일성의 격정적인 몸

짓을 따라 하고 지팡이와 밀짚모자 등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소품도 종종 들고 나왔다.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교습 자료에는 김정은이 3살 때부터 총을 쓰기 시작했고, 9살 때는 모든 표적을 맞춘 타고난 천재였다고 묘사하거나 3살부터 자동차를 운전해 8살 전에 3km 구간을 완주했고 9살 때는 초고속보트 경기에서 외국선수를 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¹

김정은은 자신의 카리스마적 지배 권위를 재생산하기 위해 혈통적 요소를 적극 활용했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가 김정은의 백두산 등반 및 삼지연 개발이다. 북한은 백두산지구 혁명격전지로서 삼지연군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2014년과 2019년에는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반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의 혁명의 성지이며 김정일의 출생지로서 백두산은 결국 백두혈통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부분이며,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반한 것 역시 백마를 타고 항일 투쟁을 했 다던 김일성의 이미지를 차용해 자신의 우상화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² 특히 2019년 백두산 행보의 경우 북미회담의 실패와 이에 맞물린 경제난 해소 실패 등의 어려움을 선대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 재생산을 통해 극복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³ 이렇듯 자신의 통치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백두 혈통과 선대의 유산을 적극 활용해온 김정은이지만 최근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선대의 유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독자 우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태양절 명칭 이슈, 독자 초상 휘장의 등장, 김정은 시대와 김정은 주의의 대두 등이 바로 그 예이다.

1 北 김정은 우상화 가속화 ... "3살부터 운전, 사격", MBC뉴스 (2015.04.08.), <https://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79321_30279.html>

2 [남북의 창] '백마 탄 왕자'가 되고 싶은걸까? - 또 다시 '우상화', KBS뉴스 (2019.10.2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10335>>

3 정홍 (2024),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통한 카리스마적 지배 권위 재생산 - 만경대혁명학원과 백두산 혁명격전지 현지도도를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제20권 제1호(2024), 291-292.

차근차근 고도화되어 온 김정은 우상화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우상화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군가의 후계자로 남는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선대와 동등한 위치에 오르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것은 2012년 4월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하면서부터이다. 그렇지만 이제 갓 지도자가 된 젊은 청년이 한순간에 ‘위대한 수령’으로 인민의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김정은 우상화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김정은 독자 우상화 현상은 그 동안 추진해온 김정은 우상화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우상화 전개 과정에 대해 김인태(2022)⁴는 ‘권력승계와 유일영도체계 강화’ (2012~2015), ‘김정은 시대 공식화와 수령 우상화 본격화’ (2016~2018), ‘수령지위의 법적 제도화’ (2019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10년간 수령 우상화의 제도화가 선대의 사례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수준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선대 시기 우상화와 비교했을 때 김정은 우상화의 남은 공식 절차는 생일 경축일 지정과 초상화의 전면 보급 등의 일정 정도라고 평가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이에 부합한다.

정교진(2021)⁵은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해 2020년까지 수령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정은이 수령이 된 것은 권력을 승계한 2012년이지만 수령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그는 김정은 수령 이미지 생성(2014) → 수령 이미지 구축(2016) → 수령이미지 강화(2019) → 수령 이미지 고착화/상징성 확보(2021)로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21년 제 8차 당대회에서 당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그 추대사에 수령의 지위에 대해 적시하며 수령의 지위를 확실히 선점하였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자신을 새로운 수령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우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같이 인민들에게 내세울 ‘업적’과 수령으로서 인민을 영도할 ‘사상’을 발전시켜야 했다. 김정은은 자신에

4 김인태(2022), “김정은시대 ‘수령 우상화’ 실태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전략보고 No.164 (2022.05)

5 정교진(2022), “북한 ‘수령’ 성격 규정의 다양성 및 그 변용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26권 제1호, 37-78.

게 필요한 업적과 사상을 국방과 경제, 즉 핵보유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채웠다.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한 업적과 사상 쌓기는 지난 10여년의 집권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핵개발에 있어서는 김정일 시대의 그것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여 2016-17년 3차례의 연달은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다. 사상적으로는 김정은이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처음 언급되었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처음 포함되었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에는 “노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제 김정은은 자신을 할아버지 김일성과 동등한 수령의 지위로 격상시켰다. 관련하여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수령으로 불리우고 있다면서 이는 김 위원장의 업적과 위상을 김일성 수준으로 평가하는 우상화라고 평가했다. 즉 김일성이 20세기 건국의 수령이라면 김정은은 21세기 핵보유국 수령으로,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주의'와 '김정은 주의'를 구분해 핵을 중심으로 선대 정권과 김정은을 차별화하여 우상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⁶

변화한 현실에 대응하는 우상화 전략

김정은의 우상화에서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과거와 같은 신격화나 신비주의를 자제하고 인간적인, 그리고 애민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2019년 3월에 열린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수령의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코로나 방역과 수해복구에 투입된 이들에게 마음 아프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개회사에서

6 “북한, 김정은 ‘핵보유국’ 수령으로 차별화·우상화 작업”, KBS뉴스 (2023.10.0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7700>>

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를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발언하였고, 올해 5월에는 위성발사실패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됐던 북한의 수령관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언사이다. 눈물을 통한 감성적 접근이나 능력의 한계를 자책하며 국정실패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북한의 지도자 이상화가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이 선대와는 다르게 인간적인 지도자상을 강조하는 것은 외부세계의 소식과 정보가 상당히 유입된 북한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이상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수진(2024)은 김정은 집권 이후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최고지도자에 대한 언급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최고지도자의 업적과 ‘위대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주요하게 생산되지만, 최고지도자를 ‘무조건적’으로 신격화하거나 이상화하는 용어 및 관련 논리들은 축소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는 경제 악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교양’을 통한 정권 찬양, 특히 무조건적인 최고지도자에 대한 이상화 정책이 체제 유지 및 최고지도자의 권력 공고화에 더 이상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준다고 평가했다.⁷

그렇지만 인간적인 리더의 모습이 북한의 지도체제의 변화나 이상화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변화한 북한사회에 대응한 이상화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민관, 허재영 (2024)는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노선을 스피нды독재(Spin Dictatorship)로 평가했다.⁸ 스피нды독재란 억압과 강요가 아닌 교묘한 방식의 조작과 왜곡을 통한 독재 방식을 뜻한다. 과거 독재자들이 일방적인 세뇌와 폭력을 사용했다면, 21세기의 독재자들은 대중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통치방식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는 공포정치와 선대와의 연속성을 주요 통치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외부 정보 유입의 확대와 그에 따른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의 증가로 지도자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마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연설 중 3중고(제재, 코로나19 대유행,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견뎌낸 주민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울먹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7 임수진(2024), “금년 북한 ‘태양절’ 기념행사 축소 의미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543호 (2024. 4.25).

8 김민관, 허재영 (2024) “‘세뇌와 공포’에서 ‘인정과 눈물’로 - ‘오류인정’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 리더십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8권 제1호, 7-43.

한다. 그에 따라 김정은은 과거와 같은 무오류의 수령이 아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리더십을 연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이상화의 난제

이렇듯 김정은은 변화한 북한 사회에 대응하여 자신의 이상화 전략을 더욱 고도화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할아버지 김일성과 유사한 권위의 수령으로 내세우는 데까지 발전했다. 그렇지만 김정은의 이상화가 성공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이상화의 중요한 두 축인 국방(핵보유)과 경제(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로 상충되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 북한은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고 대외 교역이 원활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핵개발로 인해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수출길이 막혔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난으로 이어졌다. 결국 핵개발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북한은 핵을 통한 안보와 그 경제성을 이야기한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이뤄간다는 것이다.⁹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그렇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며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행위에 정당성을 강화해 나갔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명분을 쌓아갔다.

현재도 북한은 핵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체제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상화 관점에서도 김정은의 최대 성과인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국 입장에서 불가능한 선택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 민생도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사회는 과거 김일성 당시와 큰 차이가 있다. 국가가 아닌 시장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장마당 세대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루어지는 이상화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성열 외(2022)은 삼지연을 중심으로 살펴본 북한의 지도자 상징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북한의 상징화가 경제난과 새 세대 등장으로 예전처럼 효과를

9 김상범,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4), 135, 150.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¹⁰ 특히 해당 연구에서 인터뷰한 삼지연 인근 탈북자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삼지연 전적지 정비나 살림집 건설에 대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방관적 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마당과 시장을 겪은 새로운 세대가 늘어나면서 항일혁명정신 등 김일성 시대에서 비롯된 상징 요인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알기에 김정은은 자신을 애민적인 지도자로서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악화되는 경제를 방치해서는 이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어렵다. 그렇지만 핵보유를 유지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샌드연구소가 공개한 북한 '학습 제강' 영상.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고급중학교 학생 두 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수감당 채워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사진=샌드연구소, BBC코리아 재인용)〉

2024년에도 김정은은 적극적인 북부 수해지역 방문이나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애민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현 북한 정권의 주요 정책 노선을 찬찬히 뜯어보면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력 강화와 평양 중심의 건설사업, 강화된 사회 통제와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 등 핵무력 증강과 사회 통제, 핵심 지지층을 위한 정책에 더 초점이 맞춰져있고, 실제 주민생활 향상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정책이 많다. 김정은의 이민위천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이다.

이상화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기도

그 때문일까, 북한 당국의 움직임에는 그들이 느끼는 북한 내부의 민심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21년도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년 12월 말),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 여러 문화 및 사상 통제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통제와 단속을 강화해왔다. 또한 민간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영 양곡판매소를 비롯한 국영 상점들 위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 활동은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공식적으로 수령으로 지칭되기 시작한 제8차 당대회(21년 1월), 즉 김정은 이상화의 제도적 완성을 기점으로 하고 있


10 박성열, 정원희, 한지만 (2022), “북한의 상징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31권 1호(2022), 67-73.

다. 새로운 지도자상을 내세운 김정은이지만, 우상화 강화 속에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의 강도 역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최근 김정은은 남한의 수해보도를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하고, 이를 ‘대남 대적관’을 교육하기 위한 ‘사상 교육’ 자료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이 직접 수해지역을 찾아가 남한사회에서 보도한 피해 관련 내용을 굳이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반박한 것은 김정은의 주민 동요, 나아가 민심 이반에 대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¹¹

북한의 국가 운영 방향은 점점 더 극단화 되고 있다. 올해 초 선대 유훈을 거스르면서까지 통일과 민족에 대한 노선을 변경하고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는데, 선대 유훈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러한 노선 변경을 진행했다는 것은 김정은 우상화가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와 함께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서라도 남한과 단절하고 내부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하더니 최근에는 1만 여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러시아를 통해 넘어서겠다는 심산이겠지만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을 넘어 타국의 전쟁을 위해 자국민의 피를 흘리는 데까지 이르고야 만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행보에는 우상화의 딜레마가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신이 아닌 일개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상화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모순과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다. 그래서 우상화를 고도화할수록 더욱 강력한 통제, 더욱 심한 고립이 이어진다.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가 참으로 위태로워 보인다.

북한의 강화되는 우상화속에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자.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 또한 북한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하루 속히 진정으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11임수진(2024), “김정은은 왜 우리 언론의 수해 보도에 화를 냈을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587호 (2024. 8.21), 5-7.

김정은의 독자 우상화 본격 추진 동향 및 전망

박 성 열 (송실대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

1. 들어가는 말

김정은 정권은 2011년 12월 28세의 나이에 권력을 승계한 이후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완하고 세습 권력을 굳히기 위해 선대(김일성-김정일)의 항일투쟁과 백두혈통 이미지를 자신과 일치시키고 여러 정치적 상징을 활용하며 단계적 우상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집권 10년을 넘기면서 김정은은 점차 선대 이미지 지우기 및 독자적 우상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는 수령 중심의 신정국가화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 영도체계’를 굳히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나,¹ 지속되는 경제난과 주민들의 생활고 및 어린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경험

한 장마당, 청년 세대² 등이 우상화 효과를 제약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북한이 현 시점에서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하는 실상과 그 배경을 검토하고 전망해보고자 한다.

2. 김정은 정권의 단계적인 우상화 추진

북한의 수령 우상화(idolization)는 지도자(수령)에 대한 절대화, 신격화, 숭배화로 그에 대한 무조건적, 신앙적인 마음과 신화(神話)를 조장하는 것이다.³ 이런 우상화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합

1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으로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끝없는 신뢰와 흠모를 받는 가장 위대한 령도자”이다.『조선말대사전(4)』, 중보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p. 1479-1480.

2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이후 시장화가 진행된 시기에 성장기를 보내거나 태어난 연령집단인 청년들을 ‘새로운 세대’, ‘장마당 세대’라 부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출산을 감소, 시장화 확산, 외부문화 유입, 정보화 확대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의 통치기반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의 주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가성을 갖고 있다.(김성경 외 2015, 182)

3 김인태, 김정은 시대 ‘수령 우상화 분석’, INSS 전략보고, No. 164, May 2022.

리적·정상적 권력 운용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인민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북한의 독재 체제가 3대에 걸쳐 유지되어 오고 있는 핵심 요인이다. 김정은 우상화는 급조된 후계 및 압축된 권력승계 일정에도 불구하고⁴ 세습 체제의 특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왔다. 이 글은 우상화의 제도화와 내용을 기준으로 대체로 4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1) 1단계(2012년~2015년): 안정적 권력 승계와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집중

이 시기는 취약한 권력 기반과 카리스마를 보완하기 위해 유훈통치와 최고 지도자 위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다. 첫째,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식화하여 수령의 영생과 체제의 영속성을 연계하고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부각하였다. 아울러 2013년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고 2012~2015년간 김일성-김정일 대형 동상 등 각종 상징물을 집중 조성하였다.

김정은의 최고 지도자 지위를 부각하기 위해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곧바로 ‘위대한 계승자’, ‘탁월한 영도자’로 존칭하였으며, 제4기 당대표자회(2012. 4. 11.)에서 당 제1비서,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2012.4.13.)에서 국방위원장 추대 절차를 거쳐 ‘최고 영도자’의 지위를 공식화하였다. 특히 2013년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39년 만에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원칙’으로 개정하고 장성택, 김정남(이복 형) 등 경쟁자를 제거해 유일 체제 기반을 강화했으며, 당원과 일반 주민 대상 사상교양 체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였다.

2) 2단계(2016~2018): 김정은 시대 공식화와 수령 우상화 본격 전개

제7차 당대회(2016년 5월 6~7일)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과 국무위원장이라는 새 직함으로 당-국가 최고 지위에 추대되는 절차를 완료하고, 당규약 개정을 통해 선대 수령들의 지위를 영원한 수령(김일성), 영원한 수반(김정일)으로 상징화하였다.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에 대한 존칭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를 사용하였다.⁵

2017년 9월 3일 제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29일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정권수립 70돌(‘18.9.9)을 계기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담론화하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일정들도 김정은의 위대성과 영도력을 과시하는 우상화 선전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3) 3단계(2019~2022년): 김정은 시대 국가권력체계 완비 및 수령 지위 굳히기

북한은 2019년 이후 김정은의 대표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선거(2019.3.10.)와 1차(2019.4.11.), 2차회의(2019.8.29.)를 잇달아 열어 헌법개정을 통해 국

4 김정일이 1974년(당 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 만 32세 나이에 내 부적으로 후계자로 결정되고 20년간 ‘당 중앙’으로 불리우며 후계 수업을 받은 반면, 김정은은 2010년 9.28.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대장으로 임명되어 공식 등정한 후 2011년 12월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하였다.

5 김정은의 ‘최고영도자’ 호칭과 관련하여 사법기구들의 명칭을 ‘최고재판소→중앙재판소’, ‘최고검찰소→중앙검찰소’ 등으로 개편하였다(김인태, 앞의 글).



〈2021년 1월 11일자 노동신문. 김정은의 당 총비서 추대를 1면에 김정은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

가(국무위원장), 군(공화국 무력 총사령관) 지위와 위상을 제도화하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였다.⁶ 제8차 당대회(2021.1.5.-12)를 통해 김정은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고 호칭을 정리(최고영도자→위대한 수반)⁷하였으며, 우상화의 주요 징표인 선전 구호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

도적 우상화와 함께 김정은에 대한 인격적 우상화를 위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자애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고 교육과정에 김정은 ‘혁명활동’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은 8차 당대회 이후 선대 반열의 제도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당과 수령’, ‘수령과 대중의 일체화’를 모색하며 전 당과 온 사회에 수령 지위와 절대 권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상화 굳히기에 집중해 오고 있다.

4) 제4단계(2023- 현재): 선대와 차별화되고 독자적인 우상화 전략 추진

북한은 2024년 김정은이 40세가 되면서 3대 공동 우상화에서 점차 김정은 단독 우상화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김정은 생일(1월 8일)에 충성 선서식을 개최하고 4월에는 ‘친근한 아버지’라는 김정은 선전 가요가 등장하였다. 김일성 생일(4.15)을 ‘태양절’에서 ‘4월 명절’ 또는 ‘4·15’로 격하 표현한 데 이어 김정은은 2년 연속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생략하였으며⁹, 김정은을 ‘주체 조선의 태양’으로 호명하고 2024년 6월 3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 휘장)가 처음으로 포착되었다.¹⁰

이와 함께 김정은은 2023.12월 제8기 제10차 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6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었다”고 설명했다(김일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14기 2차회의 특징 분석, 이슈브리프 통권 14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9.3.).

7 당 제8차 대회 이후부터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지위인 ‘최고령도자’에서 당-국가체제를 대표하는 ‘위대한 수반’으로 격상시켰다.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직함의 영문 표기를 그간 ‘체어맨(chairman)’에서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바꾸었다. “위대한 수반”으로 변경한 구호는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로동신문』, 2021년 2월 25일.

8 8차 당대회 이후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등 구호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로동신문』, 2021년 4월 4, 15일.

9 북한은 김일성 사망 3년 후인 1997년부터 김일성이 태어난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고 최대 명절로 기념해 왔다.

10 김정은 배지가 2012년 제작됐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일 배지가 1992년 50세 때 제작되었고, 김일성 배지의 경우 1970년 58세 때 처음 나온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 우상화가 그만큼 선대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올 6월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김재룡 당 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초상휘장, 빨간부분)를 왼쪽 가슴에 착용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파격적인 남북관계 기조 전환을 통해 선대 유산인 ‘조국통일’ 노선을 전격 폐기하고 선대 유산의 상징물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하였다. 또한 2024.10.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지침을 헌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였음을 공개하였으며(노동신문 2024.10.17자), 2024.10.13.자부터 노동신문에 김일성 상징인 주체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전선동의 핵심에서부터 선대 지우기와 김정은 독자 우상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독자 우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간부 양성 차원에서 2024.6월 당 중앙간부학교를 평양시에 신설 개교하였으며, 김정은은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부터 정기적인 재교육을 받고, 창당이념과 정신에 충실한 새 시대 당 간부들을 키울 것”을 지시하는 등 새 시대 간부 양성 및 중견간부 재교육을 강조하였다.¹¹

11 김인태, 앞의 글

3. 김정은 우상화에 대한 평가 및 제약 요인

1) 평가 및 전망

김정은 우상화는 최고 지도자 이미지 형성과 수령영도체계 구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제도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선대 사례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치적 상징 조작에 의한 우상화는 취약했던 집권 초기의 권력 기반과 짧은 통치 경륜, 카리스마 부족 등을 보완하고 권력승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략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핵무기 체제 완성을 선언하고 당과 내각, 군을 장악하면서 점차 선대와 차별화된 김정은의 독자적 우상화 추진은 수령제라는 1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앞으로도 김정은 우상화는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체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25년 제9차 당대회 등 계기로 노동당 규약에 ‘김일성·김정일주의’와 함께 새로운 ‘김정은 주의’를 추가하고 보다 완벽한 수령 형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구체 조치로는 생일(1.8) 경축일 지정, 초상화(뱃지형)의 단계적 보급 확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2) 우상화 제약 요인

수령 우상화에서 중요한 과제는 김정은의 수령 지위를 강화하면서 체제 안정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상화의 효과를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인민 생존을 위협하

는 경제 문제, 새로 등장한 신세대의 의식변화, 김정은 가계의 취약성, 선대에 비해 카리스마 부족 여론 등이다.

무엇보다 수령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문제 성과가 있어야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화에 대한 인민의 공감과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국가 자원을 국방과 무기체계에 집중하고 있고 경제발전 5개년계획(21~25)의 실제적 성과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가 지속 부진할 경우 지도자 우상화의 효과가 인민들에게 내면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나 장마당을 겪은 새로운 세대가 북한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김정은 우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¹² 새로운 세대의 체제 인식과 태도는 향후 정권의 통치 환경과 함께 장래 후계 구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 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노동신문 2021.8.20.)이라고 호명하면서 청년중시정책을 표방하는 한편,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12월),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1월)을 제정하는 등 청년들의 사상의식 오염과 비사회주의적 문화의 확산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김정은 개인 가계의 취약성이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 가계의 혁명 역사와 위대성을 우상화

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면서도 정작 김정은의 개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정확한 나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고향과 성장기 환경, 경력을 밝히지 않은 채 과장된 위대성 교양, 선전으로 대체하였다. 특히 모친(고용희)과 외가(재일교포), 형제 관계(친형 김정철 등)상 불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혁명역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이며, 향후 일정 기간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북한 주민들은 체계적인 우상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권력세습 및 김정은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¹³ 탈북민 대상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정은 우상화에 대한 북한 주민 저변의 수용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 김정은 우상화 관련 북한 주민 반응
(탈북민 조사 결과)¹⁴

항목	김정은 집권이후 민심	김정은에 대한 전반 평가	김정은 권력승계 평가
긍정	8.7%	20.4%	26.0%
보통	33.0%	17.9%	20.7%
부정	56.8%	55.8%	43.8%

4. 나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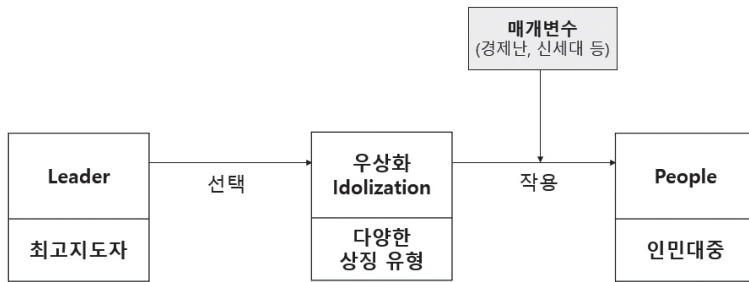
김정은은 집권 직후부터 단계적이고 강력한 우상화 전략 추진으로 권력 기반을 강화해 왔음을 확인

12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사회주의적 문화와 외래문화 사이, 국가와 시장 사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적극적 행위주체와 수동적 군중 사이 에 양가적으로 존재하는 ‘사이 세대’이다(김성경 외 2015, 182).

13 통일부는 2024년 탈북민 6,513명 대상 북한 사회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 자료는 전문가 참여 및 광범위한 사례를 직접 조사하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14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탈북민 6,351명이 알려진 북한의 실상”, 통일부, 2024.

〈그림 1〉 지도자 우상화의 작동 체계¹⁵



하였다. 북한처럼 폐쇄된 전체주의 사회에서 권력자 우상화는 인민이 다양한 상징에 내재된 상징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작동되나, 인민이 받아들이기 전 매개변수에 의해 그 효과가 조절된다(〈그림1〉참고). 김정은은 최근 선대와 차별화되고 독자적인 우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경제난 및 장마당 세대의 전면 등장, 김정은 개인 가계의 취약성,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 매개

변수 작용으로 우상화의 효과가 점차 인민들에게 의도한 만큼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¹⁵

이는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징 조작에 의한 우상화를 지속 강력히 추진할 것이나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김정은 체제의 고민이 가중되는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연구 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핵 문제나 이념, 권력 구조와 시장현상 등이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나, 북한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 요인 및 지도자와 인민을 연계하는 우상화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¹⁶

참고문헌

- 김인태, “김정은시대 ‘수령 우상화’ 실태 분석”, INSS 전략보고 No. 164. 2022.5월.
- 김성경, 노귀남, 오유석, 최봉대,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 김일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14기 2차회의 특징 분석”, 이슈브리프 통권 14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9.3.
- 박성열, 정원희, 한지만, “북한의 상징 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1-47. 2022.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https://nk.chosun.com>)
- 통일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 2024.
- 현안보고서, “KINU 북한동향 상반기(2024년 상반기)”, 북한연구실, 통일연구원. 2024-03.
- 북한 노동신문
『조선말대사전(4)』, 증보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p. 1479-1480.

15 박성열, 정원희, 한지만, “북한의 상징 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1-47. 2022. 〈그림8〉 ‘상징정치 체계의 매개변수 작용’을 인용하였음.

16 필자가 만난 북한 고위층 탈북민들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권력층에게는 핵무기 개발보다 오히려 지도자 우상화가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김정은의 우상화 실태와 전망

오 일 환 (사랑글로벌아카데미 교수)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기에는 김일성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항일 빨치산 1세대를 비롯해 2세대의 절대충성과 절대복종이 정권 및 체제 유지에 크게 뒷받침되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기에는 그러한 확고한 인적 자원이 없을뿐더러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의 여파, 그리고 한류 및 외래 문화와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의 의식 변화로 인해 정권 및 체제 유지에 일정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김정은 정권은 폭압적인 공포정치를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한편,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상징정치에 매달리고 있다.

집권 초기의 김정은 우상화가 주로 그의 어린 시절을 미화하며 상징조작을 하거나 김일성의 제스처·외모 따라하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집권 10년 차를 맞이하는 2022년부터는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우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전면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김정은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조짐이 여러 사례에서 포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용어

상징정치, 이미지 상징정치, 김일성 흔적 지우기 통한 상징정치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김정은 우상화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용어 상징정치는 ‘수령’ 호칭을 통한 김정은 우상화, ‘어버이·아버지’ 호칭을 통한 김정은 우상화, ‘김정은주의’ 용어를 통한 김정은 우상화 강화를 중심으로, 이미지 상징정치는 모자이크 벽화를 통한 김정은 우상화, 초상화·초상휘장을 통한 김정은 우상화 강화를 중심으로, 김일성 이미지 지우기 통한 상징정치는 김일성의 태양 이미지 지우기와 태양 이미지 부각을 통한 김정은 우상화, 주체 연호 사용 중단을 통한 김정은 독자 우상화 강화를 중심으로 각각 그 실태를 분석하고 전망할 것이다.

1. 용어 상징정치를 통한 김정은 우상화 실태

(1) ‘수령’ 호칭을 통한 김정은 우상화

북한 당국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앞둔 2021년 들어 김정은에 대하여 ‘수령’이라는 호칭을 본격

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이 호칭은 김정일 시기까지는 김일성에게만 부여된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 ‘유훈 통치’를 하면서 그를 ‘영원한 수령’으로 지칭토록 하였다. 김정일은 ‘수령’을 김일성에게만 특별히 부여하였고, 다만 자신은 ‘장군님’ 또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정도로 호칭되었다.

김정은에 대한 ‘수령’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2018년이었지만 2020년에 4회, 2021년에 16회로 급증했다.¹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이 비서국으로 복귀함으로써 2021년 1월 10일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그 이후로 ‘수령’ 호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² 그해 9월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혁명력사」라는 자료(강의 시간: 1시간)가 북한 간부들에게 배포되었는데, “이 절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강화 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김정은을 지칭하는 ‘수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에 대하여 ‘수령’으로 호칭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2021년 10월 22일자 『로동신문』에는 김정은에 대하여 ‘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또 한 분의 위대한 수령’,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등으로 지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온다. 수령에 ‘걸출한’이란 수식어가 붙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격화된 김일성에게만 사용했던 ‘위대한 수령’이



〈김정은에 대한 ‘수령’ 호칭 연도별 빈도 (사진=통일부)〉

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도 사용하지 않았던 ‘수령’ 호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반열에 올랐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의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올해 9월 27일 자 로동신문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유산이며 제일국풍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된다”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면서, 특히 전 세대의 유산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청년들이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수령’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의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즉, 김일성 시대에 수령-당-인민대중을 연결하며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는 혁명적 수령관과 수령이 인민대중에게 부여했다고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강조하면서 수령을 신격화하여 ‘수령절대주의체제’를 구축했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에도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소환하여 북한 사회를 철권통치로 군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이러한 해석은 올해 1월 8일 김정은 생일날 아침에 기관별, 사업소별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성의 선서모임’에서 행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선서한

1 “‘김정은 수령’ 호칭 급증했다…북, 우상화에 속도(종합),” 『연합뉴스』, 2023.8.17.

2 “북, 김정은 우상화 속도…‘수령’ 호칭 울들어 26회로 급증,” 『연합뉴스』, 2023.8.17.

‘선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월 27일 자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충성선서문³에 따르면, 그 내용은 5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서두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의 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독려하면서 ① “첫째, 우리는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우리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을 건결히 옹호보위하겠습니다.” ② “둘째,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며 오직 백두의 혈통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되겠습니다.” ③ “셋째,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여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겠습니다.” ④ “넷째,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정치사상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조직규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밀려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겠습니다.” ⑤ “다섯째,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공민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굳건히 수호하며 조국통일⁴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

다.”라고 맹세하고 있다.

선서문이 첫 부분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한 번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항에서 5항에 이르기까지 모두 김정은에 대한 절대충성,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은에 대한 ‘수령 결사옹위’, 김정은의 ‘혁명사상’·‘유일적 영도’·‘정치적 생명’, ‘김정은 조선 수호’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수령의 신격화를 위한 기존의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추구하는 귀결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아버이’·‘아버지’ 호칭을 통한 김정은 우상화

올해 들어 북한 관영매체에 ‘수령’ 호칭과 함께 김정은에 대해 ‘아버이’로 표현하는 빈도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올해 4월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뮤직비디오 형태의 우상화 선전가요 ‘친근한 아버지’를 방영했다. 이 선전가요는 전날인 4월 16일 저녁에 진행된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준공식 공연에서 사전 제작된 뮤직비디오 재생으로 처음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김정은을 ‘위대한 령도자’와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하면서 인민이 한마음으로 그를 신뢰하고 따름을 강조하고 있다. 4월 20일 자 로동신문 1면에는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친근한 아버지’에 대해 “정녕 그것은 고난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 따듯이, 더 억세게 품어 안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가슴 가득 안겨주시는 위대한 아버지께 대한 열화 같은 흠모의 송가”라고 평했다. 이처럼 ‘친근한 아버지’가 공개된 이후 북한 당국은 이 가요를 전 주민들

3 “북 선서문, 선대보다 ‘김정은 시대’ 강조,” 『자유아시아방송(RFA)』, 2024.2.27.

4 이처럼 ‘조국통일’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선언문이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통일정책 폐기 선언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에게 보급시키며 세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월 24일 자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이 “오늘(4월 23일) 정기학습에 참가했는데 첫 시간에 ‘친근한 아버지’ 노래를 부르고 시작했다”면서 “집에서도, 길에서도, 회의장에서도 부르고 들어야 하니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며, “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조직별로 보급하는 것도 모자라 길에는 방송차, 집에선 유선방송으로 붙어대고 있으니 이제는 꽃제비도 ‘친근한 아버지’를 부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⁵ 보도했다. 김정은에 대한 ‘아버지’ 호칭과 더불어 ‘아버지’ 호칭도 수년 전부터 아동부터 시작되었고, 2022년 말에는 청년으로 확대되었다.⁶ 올해 들어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에 대한 ‘아버지’ 이미지를 부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김정은의 ‘아버지’, ‘아버지’ 이미지 부각에 열을 올리는 것은 1962년에 등장한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아버지(수령)-어머니(당)-자녀(인민 대중) 관계와 연결함으로써 김정은 우상화와 함께 수령절대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 ‘김정은주의’를 통한 김정은 우상화

올해 들어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래 이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2021년 10월이었다. 지난 1월 5일, 과거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수

단이었던 중앙연구토론회에서 ‘김정은 혁명사상’이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고 언급되었다. 북한의 당 규약(2021)에는 ‘유일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명기돼 있는 상황에서 규약이 개정되기 전에 ‘김정은 혁명사상’을 국가 최고통치이념을 의미하는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⁷ 최근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정은 동지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자!’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지난 5월 24일 자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내부 소식통이 “원래 회의장 측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전당과 온 사회를 김정은 동지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자!’로 바뀌어 있었다”고 전했다고 한다.⁸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김정은 사상을 곧 ‘김정은주의’로 정식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아직은 북한 당국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여전히 내세우고 있지만, ‘김정은주의’의 등장은 김정은이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로서 북한 주민에게 자신이 김일성의 반열에 올랐다는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도 북한 사회에서 수년 내에 ‘김일성주의’, ‘김일성-김정은주의’가 사라지고 ‘김정은주의’만 강조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올해 5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전날(5월 15일) 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완공 현장 방문 사진을 공개했는데, 학교 혁명사적관 맞은편

5 “북, 김정일 찬양곡 개사해 김정은 찬양,” 『자유아시아방송(RFA)』, 2024.5.24.

6 “북, 김정은 우상화 속도…'수령' 호칭 올들어 26회로 급증,” 『연합뉴스』, 2023.8.17.

7 “통일부 ‘북, 김일성 활용한 김정은 우상화 움직임 분주,’” 『연합뉴스』, 2024.2.15.

8 “[시사진단 한반도] 김정은 우상화 다음 단계, ‘초상휘장’과 ‘생일,’” RFA, 2024.5.24.

건물 외벽의 양쪽에 마르크스와 레닌의 대형 초상화가 설치돼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통일교육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주체사상 일색화를 위해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지워버린 선대를 뛰어 넘어 자신은 이들 공산주의 사상이론가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의 표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⁹ 현재는 헌법보다 상위 개념인 노동당 규약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고 당의 최고 강령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수년 내에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차별화된 ‘김정은주의’의 공식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미지 상징정치를 통한 김정은 우상화

(1)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를 통한 김정은 우상화

북한에서 모자이크 벽화는 ‘쪽무이 그림’으로 불리며 1,200℃에서 구워낸 색유리와 타일 또는 가공된 천연석에다 그림을 그려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다.¹⁰ 최고지도자의 모자이크 벽화는 현지 지도를 한 사실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현지 지도 장소에 설치하는 대표적인 북한의 우상화 도구 중의 하나다. 북한에서 한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자이크 벽화만 존재했지만, 김정은이 집권 10년 차를 넘기면서 그의 현지 지도를 기리



〈22년 10월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지구에서 열린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장에 설치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자이크 벽화. (사진=조선중앙TV)〉

는 벽화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양새다. 2023년 10월 23일 자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남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이 10월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중앙이 하달한 내적 지시는 김정은의 현지지도 받은 단위들이 김정은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건립할 데 대한 내용”이라며 “김정은이 다녀간 2급 이상 기업소들이 그 대상”이라고 전했다고 한다.¹¹ 이는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가 전국 곳곳에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10월 12일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가 포착되었는데, 이 벽화에는 8개월 전에 김정은이 농장 착공식에 참석해 세 사람의 간부들과 함께 첫 삽을 뜨던 장면이 형상화되어 있다.

지난해 2월 8일의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관련 보도에서는 김정은 단독으로 그려진 모자이크 벽화가 등장했다. 6월 12일에는 로동신문이 묘향산 의료기구공장을 현지 지도를 한 김일성과 김정일

9 “[사사진단 한반도] 김정은 우상화 다음 단계, ‘초상회장’과 ‘생일,’” RFA, 2024.5.24.

10 “北신문,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조영…‘김정은 세번 방문’ 강조,” 『연합뉴스』, 2023.6.12.

11 “북,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 설치 지시,” 『자유아시아방송(RFA)』, 2023.10.23.

이 의료실에서 담소하는 모습이 담긴 모자이크 벽화와 나란히 배치돼 있는 김정은의 모자이크 벽화를 공개했다. 김정은이 현지 지도 현장에서 의료의 자에 손을 올리고 의료 일꾼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긴 벽화다. 그리고 9월 19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9월 17일 평양에서는 처음으로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며’라는 제목의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있었다. 이 벽화에는 김정은이 원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붉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¹² 10월 5일엔 로동신문이 남포시에 있는 금성트랙도르(트랙터)공장을 조명하면서 트랙터에 탄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모자이크 벽화를 공개했는데, 이 벽화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각각 현지 지도를 한 모자이크 벽화들과 함께 나란히 설치돼 있다. 10월 23일에는 조선중앙TV가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모자이크 벽화가 평안남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설치된 영상을 방영했다.¹³

올해 들어서도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는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한 곳을 중심으로 계속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월 14일 자 로동신문은 전날인 1월 13일 황해북도 황주군에 새로 건설한 광천담공장이 조업을 시작했으며 조업식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 속에는 조업식 주석단 뒤에 설치된 김정은의 모자이크 벽화가 보이는데, 흰색 가운을 입은 김정은이 1월 7일 양계장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¹⁴ 4월 9일 자 로동신문은 강동종합

온실농장에 설치된 김정은의 모자이크 벽화를 조명하였는데, 이 벽화는 지난해 김정은이 농장 건설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뜨며 웃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¹⁵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21일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22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사진에 학교 교내에 세워진 김정은의 연설 모습을 형상화한 단독 모자이크 벽화가 포착되었다.¹⁶

한편, 김정은의 혁명사적비와 현지도표식비도 전국 곳곳에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에서 혁명사적비와 현지도표식비는 모자이크 벽화와 함께 대표적인 우상화 조형물에 속하는데, 최고지도자의 혁명업적과 현지도를 기리기 위한 표식이다. 로동신문은 지난 4월 11일 자 보도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 주시고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장엄한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전하는 혁명사적비, 현지도표식비가 전국 각지에 정중히 건립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혁명사적비는 지난 2023년 10월 연포온실농장에, 현지도표식비는 지난 2021년 9월 은파군 대청리에 건립됐다는 보도를 기점으로 혁명사적비·현지도표식비 관련 보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불과 2~3년 사이에 이제 ‘전국 각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념비들이 전국 곳곳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¹⁷

12 “평양 한복판에도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 등장…우상화 박차,” 『연합뉴스』, 2023.9.19.

13 “북,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 설치 지시,” 『자유아시아방송(RFA)』, 2023.10.23.

14 “이제 현지도 즉시 ‘김정은 벽화’ 설치…우상화 ‘속도’[로동신문 사진].” 『뉴스1』, 2024.1.21.

15 “北강동온실에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어버이’ 호칭 쓰며 우상화: 최고지도자 입지 공고화…‘통치 자신감’ 내비치나,” 『뉴스1』, 2024.4.11.

16 “북한, 당 중앙간부학교에 김정은 단독 모자이크 벽화 설치,” 『연합뉴스』, 2024.5.22.

17 “北,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 이어 혁명사적비·현지도표식비도 전국 건립,” 『뉴스1』, 2024.4.12.

이처럼 북한 당국이 김정은 관련 모자이크 벽화와 혁명사적비·현지도표식비 설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넘기면서 그의 이상화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이 선대 최고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위상을 가진 통치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정치로 볼 수 있다.

(2) 초상화와 초상휘장을 통한 김정은 우상화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22일 김정은이 전날 21일에 평양 금수산 지구 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며 다수의 보도사진을 제공했는데, 이 중에는 교내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정은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사진, 학교 교실 칠판 윗단에 이들 3명의 초상화가 나란히 배치된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들은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도 공개되었다. 이는 김정은이 선대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위상에 올랐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우상화를 본격화하고 상징정치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¹⁸ 이 같은 사실을 미루어볼 때 수년 내에 북한의 모든 공공기관과 가정에도 3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리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초상휘장(배지)은 가슴에 부착하는 대표적인 우상물 중의 하나다. 조선중앙통신이 2024년 6월 30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차인 6월 29일 회의 사진을 보면 참석 간부 전원이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나왔다. 김일성 초상휘장은 1970년 11월 김정일이 노동당 5차 대회에서 발기하면서 본격 제작·지급되었고, 김정일 초상휘장은 1992년 김정일 50회 생일을 계기로 만수대창작사에서 만든 바 있지만, 김정일의 반대로 일부 간부만 달다가 2000년대 들어서야 일반 주민도 달고 다니기 시작했다. 김정일 사후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있는 초상휘장이 주민들에게 대량 보급되었다.¹⁹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은 김정일 사후인 2012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으나,²⁰ 김정은 집권 출범 12년 차에 공식 석상에 김정은 초상휘장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이다. 김정은 우상화의 진척과 함께 김정은 초상휘장은 널리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의 등장은 선대 김일성·김정일을 승계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며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 김일성 이미지 지우기 통한 상징 정치

(1) 김일성의 태양 이미지 지우기와 김정은 태양 이미지 부각을 통한 우상화

북한은 지난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

18 “김정은 초상화, 김일성·김정일과 나란히 걸렸다,” 『조선일보』, 2024.5.22.

19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에 최초 등장…단독 우상화 작업 가속,” 『연합뉴스』, 2024.6.30.

20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은 2013년 제5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기간 남한 취재진을 만나 ‘김정은의 초상휘장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있다. 2012년 초에 만들어졌다. 동그란 모양과 네모난 모양 2가지가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에 최초 등장…단독 우상화 작업 가속,” 『연합뉴스』, 2024.6.30.

두고 김정은을 ‘21세기 위대한 태양’으로 찬양한 이후 가끔 김정은을 ‘태양’으로 호칭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 빈도수가 부쩍 늘고 있는 반면에 ‘영원한 수령’으로 지칭돼온 김일성에 대한 ‘태양’ 호칭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이 자신의 우상화를 위해 김일성의 절대 권위마저도 훼손시키는 것은 왜



〈노동신문이 올해 4월 15일 '수도의 거리마다에 경축의 환희가 넘쳐흐른다'라면서 보도한 평양 거리 사진. '태양절' 대신 쓰인 '4·15', 그리고 옆에 위치한 선전화의 '김정은시대'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사진=노동신문)〉

일까? 아마도 이 같은 현상은 김정은의 우상화의 강도를 높이려 의도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대에 대한 신격화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은 올해 북한의 최대 명절인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태양절’ 용어를 감추는 이례적인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도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매체는 일제히 ‘태양절’을 ‘4월 명절,’ ‘4·15,’ ‘민족 최대 명절,’ ‘4월의 뜻깊은 날,’ ‘4월 봄 명절’ 등으로 바꾸어 표현했다. 4월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김일성 생일 112주년을 맞아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진행됐는데,

4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의 해당 보도사진을 살펴보면, 무대 상단에 ‘태양절’ 대신 ‘4.15 경축’이란 문구가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4일 KBS 뉴스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의 최근 홈페이지에 “북한 파트너(당국)로부터 ‘태양절’이란 문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

러 차례 확인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²¹ 이 같은 일련의 행태로 볼 때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김일성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반면에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3월 강동종합온실 준공 행사에서 ‘주체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현수막이 등장했다. 4월 17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글에서는 김정은이 “주체 조선의 태양”으로 표기되었다.²² 최근 들어서는 북한 당국이 각 철도역과 기관, 공장기업소마다 김정은을 ‘태양’으로 선전하는 구호를 내걸도록 지시했다. 청사 왼쪽에 걸려 있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구호는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로 교체되었고, 오른쪽에 걸려 있던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구호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

21 “올해 생일선물로 ‘총성 선서’ 받은 김정은…내년엔 명절로? [뒷北뉴스], 『KBS 뉴스』, 2024.5.04.

22 “올해 생일선물로 ‘총성 선서’ 받은 김정은…내년엔 명절로? [뒷北뉴스], 『KBS 뉴스』, 2024.5.04.

의 만세'로 교체되었다.²³

그동안 김일성에 대해서만 '조선의 태양'으로 호칭해왔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구별하여 '조선의 별' 또는 '광명성'으로 지칭해 왔던 북한 당국이 하루아침에 김정은을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우상화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을 '영원한 태양'이라며 영생탑과 태양상을 도처에 건설해 놓았던 북한 당국이 왜 하루아침에 김일성의 절대 권위마저 훼손시켜 가며 김정은 그 손자인 김정은에게로 '태양' 호칭을 넘겨버리는 것일까? 김일성에 대한 태양 이미지 지우기는 결국 한 나라에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의 발로로 보인다. 현재 북한 땅에서 '최고 존엄' 김정은의 우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사라져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현상을 미루어볼 때, 김정은의 우상화 강화를 위해 수년 내에 김정은의 생일도 김일성·김정일 생일처럼 국가 명절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2) 주체 연호 사용 중단을 통한 김정은 독자 우상화

김일성의 생일인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삼는 주체 연호가 올해 10월 12일 밤부터 북한이 발표한 성명과 담화에서 사라졌다. 이날 밤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에 주체 연호 없이 '2024년'이라고만 적혔다. 로동신문에는 다음 날 13일 자 지면과 홈페이지에 서기로만 표기된 채로 발간되었다. 이후 모든 공식 문서나 언론에서 주체 연호가 사라지고 서기로 표기되고 있

다. 이처럼 김일성 사후 3년째인 1997년부터 27년간 사용해온 주체 연호 사용을 갑자기 중단한 것은 김정은이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통치방식으로 서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핵 능력 강화와 같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과신의 표현으로 보인다. 결국, 주체 연호 사용 중단은 북한 당국이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는 신호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김정은 우상화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핵 문제로 인한 국제 제재로 겪는 총체적 경제난과 식량난, 한류를 비롯한 외래문화와 외부 정보의 유입·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은 김정은 정권 및 체제의 유지·안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오로지 자신의 정권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민을 위한 정치는 눈 밖에 있다. 굶주리는 주민의 생계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오로지 핵 능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왔다. 당·정·군 엘리트층을 비롯한 주민의 반발을 애당초 차단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공포정치와 김정은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대남전략에 있어서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에 소집된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2국가'와 '영토평정' 노선을 제시했다. 남북관계를 동족·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국경선을 마음대로 획정하고 장벽 쌓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토평정' 노선을 통해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남조선 영토를 점령, 평정, 수복, 편입"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극단적 대남전략은 대내

23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우상화 속도,” 『자유아시아방송(RFA)』, 2024.5.2.

적으로 적개심을 고조시키면서 내부단결을 유도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은 대상으로 통일 한국을 모색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복음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한류 문화가 장마당 세대의 의식을 변화시키면서 북한 사회에 충격을 주며 일정 변화를 초래한 것을 보면, 복음도 문화적으로 북한 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 북한의 복음화를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만이 우상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있다. 북한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3대에 이르는 북한의 우상화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복음은 사람의 영을 움직여 자유의지를 일깨우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북한의 복음화는 곧 북한의 해방을 수반하고 마침내 복음적 평화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신명기 5:7-10)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과 그 의미

강 동 완 (동아대 교수, 유튜브 강동완TV 운영자)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반종교 교육 등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주장은 북한 정권의 우상화 실태를 보면 여지없이 거짓으로 드러난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의 3대 세습은 이제 북한 곳곳에 우상화를 위한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선전물이나 조형물은 그 자체로 신격화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김정은은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절대적인 신적 존재로 우상화할까? 또한 이러한 우상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모자이크 벽화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의 모든 행정구역에는 반드시 영생탑과 모자이크벽화가 세워져 있다. 리 단위 마을까지 어김없이 영생탑이 세워져 있고, 모자이크벽화는 주민

들이 국가기념일마다 헌화를 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쓰인 영생탑은 그야말로 북한 우상화의 전형적인 상징물이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영생을 말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지도자를 칭송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모자이크벽화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사진이나 현지 지도 장면을 형상화해 놓은 조형물이다. 무엇보다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타일 조각을 일일이 붙여서 만드는 방식이라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지 지도 모습을 주로 형상화하는데, 최근에는 김정은의 단독 모자이크벽화가 등장했다. 지난 2024년 1월 7일 김정은은 자신의 딸인 김주애와 함께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했다. 그런데 실제로 광천닭공장 준공식을 개최한 날은 1월 13일이다. 주목할 점은 준공식 때 모자이크벽화가 세워진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놀랍게도 모자이크벽화에 새겨진 그림은 바로 김정은이 6일전 현지지도를 하던 모습이다. 6일 만에 모자이크벽화 하나가 똑딱 세워진 것이다. 이제는 김



〈북한의 국경 마을에 위치한 모자이크벽화(위)와 올해 1월 13일 진행된 황해북도 황주군 광천담공장 조업식에서 확인된 같은 달 7일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 모습을 담은 모자이크벽화(아래).〉

권위를 나타내는 이상화의 절정은 단독 초상사진에 있다.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닌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사진이다. 거리나 건물 외벽은 물론 집안에도 내걸린 초상사진은 북한 이상화의 전형이다. 만약 집에 불이 났을 때도 초상사진을 가장 먼저 챙겨 나와야 할 만큼 신격화되는 상징물이다. 그런데 바로 그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사진 옆에 김정은의 초상사진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2일 김정은은 평양에 들어선 당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당 건설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과제는 “간부들의 당성·혁명성·인민성을 3대 필수적 기질로 철저히 확립하고 제고하는 것”이라면서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새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했다. 또한 김정은은 “당 창건 위업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 이상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은 간부들의 첫째가는 혁명 과업”이라며 “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적인 학원으로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기관의 면모를 일신하는 사업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명맥과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천추만대로 이어나가기 위한 최종대사”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준공식 자리에 김일성-김정일 초상사진과 함께 김정은의 초상사진이 나란히 걸렸다는 점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당중앙간부학교에 김정은의 초상사진이 내걸렸다는 점은 바로 3대세습에 대한 공고화는 물론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초상화와 모자이크벽화는 배열 순서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날 준공식장에는 이례적으로 맑스와 레닌의 사진 옆에 나란히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내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아닌 김정은의 대형 초상화가 걸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맑스-레닌주의 공산주의를 계승함은 물론 새로운 이론의 창시자로서 김정은에 대한 위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분명 포함된 것이다.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신곡 〈친근한 아버지〉

또한 지난 4월 16일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영상을 보면, 김정은의 이상화 작업이 문화예술을 통해 전 분야로 확산함을 알 수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축하기념공연이 열렸는데 새 선전가요 '친근한 아버지'의 최초 공연이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는 친근한 아버지 뮤직비디오

도 나왔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주로 김정은이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 학생 등 '미래세대'와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이 담겼다.

'친근한 어버이'의 첫 소절은 '어머니 그 품처럼 따사로워라, 아버지 그 품처럼 자애로워라, 슬하에 천만 자식 한품에 안고 정을 다해 보살피시네'로 시작한다. 이후 가사들도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 '친근한 어버이'로 표현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 노래는 특히 "김정일을 상징하는 노래인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21년 2월 광명성절 공연 당시 김정은 무대에서 노래를 하던 가수 김옥주에게 2번이나 앵콜을 지시했다. 바로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신곡은 <친근한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제목과 가사가 비슷하다. 즉, 김정일을 최고지도자로 우상화했던 노래를 김정은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 것이다. 두 곡을 비교해보면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비교	
친근한 이름	제목	친근한 어버이
노래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자랑하자 김정일 친근한 이름	가사	노래하자 김정은 우리의 령도자 자랑하자 김정은 친근한 어버이

한편 이 공연에서 '친근한 어버이'라는 신곡을 먼저 연주한 이후 신 애국가가 연주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의 국가는 지금까지 우리와 똑같이 '애국가'로 불렸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꾸고,



〈북한이 올해 4월 17일 공개한 선전 가요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가사 또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조국'을 '이나라 아름다운 내조국'으로 바꾸었다. 이는 분명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를 보여주는 의도된 연출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준공식 개최 시점이 김일성 생일(4월 15일) 직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의 권위를 넘어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포, 민족, 통일을 삭제하라


지난 2023년 12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대남부문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제시했다. 이어서 2024년 1월 16일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의 후속 조치로 대남·통일 노선 전환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유지됐던 대남·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남·통일 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처럼 남북을 동족으로 간주하는 말을 쓰지말라" 등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남북한은 동족이 아닌 적대국이고, 남북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

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서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김정은은 남한과 대화를 통한 연방제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사용한 무력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목할 점은 남한은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니고, 그 언제가도 통일을 성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개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북한주민들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조선혁명역량 강화를 강요받았다. 미제 식민주의 고통받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을 혁명신념으로 여겼다. 민족과 동포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통제하며 하나로 결속시키는 이념이었다. 그런데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론을 제시한 것은 더 이상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장마당 세대로 대변되는 북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외부사조에 물들어 충성심이 약화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제의 전형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초상사진에 이어 단독 모자이크벽화와 초상휘장,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노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상화 작업이 추진되지만, 그 열수록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외부세계를 향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동포라는 단어까지 삭제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 정권의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북한 주민들이 있다. 북한정권은 위로부터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옥죄이고 있지만, 이를 벗어나려는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욕구와 저항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 감옥의 문은 결코 안에서는 열 수 없기에, 우리의 기도가 감옥과도 같은 북한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2)

김 열 매 성도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 주신 때는 제가 10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보시던 책에 관해 묻거나 식사를 준비하시며 흥얼거리시는 생소한 노래에 관해 물어도 ‘그런 책이 있다’ ‘그런 노래가 있다.’ 하시던 할머니께서 손주들이 점점 질문이 많아지는 것을 보시고는 드디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날은 집 안에 문들을 다 걸어 잠그시고, 창문에는 담요를 걸어 가리고 가족들을 모여 앉히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보시던 ‘그 책’을 가지고 와 본인에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얼굴로 입술을 떴습니다. “이 할머니나 너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 하시고는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늘과 하늘의 별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너희도 이제

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 할머니는 성경책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여야 한단다. 성경책을 바닥에 놓고 건너다녀도 안되며, 말씀을 아무데나 썼다가 찢어버려도 안된다.” 할머니는 엄격하고 엄중하게 성경책의 귀중함에 대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교육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보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며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성경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성경이야기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시시때때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뿐 만 아니라 찬송가도 배워주셨는데 우리는 새하얀 공책을 사서 거기에 그날그날 배운 찬송가 가사를 적어 놓곤 했습니다. 찬송가 하나를 3-4일 동안 배우고 나면 또 다른 찬송가를 알려주셨고 우리는 열심히 할머니를 따라 찬송을 배웠습니다. 한번은 할머니께서 저희가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들이 이렇게 할머니와 함께 앉아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두세 명이 함께 모인 곳에는 꼭 하나님도 함께 계신단다.” 어린나이였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순간 어떠한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참 기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을 나누는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저를 너무나 기쁘게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배웠던 찬송가는 ‘주 예수 지신 십자가’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주 예수 지신 십자가 내 죄를 사하니
주 예수 지신 십자가 나 또한 지리라.

그때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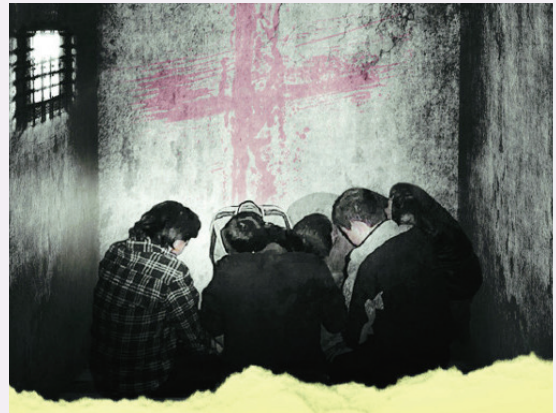
인지도, 어떤 삶인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 불렀던 노래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찬양의 가사가 모두 할머니의 신앙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을 배워주시고 나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담, 모세, 요셉 같은 성경인물들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잘 준비를 한 후에 할머니 곁에 나란히 누워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처럼 잠자리에 누워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입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열매야 자니?”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안잡니다.”라고 대답하니 할머니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잠이 와도 이겨내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하면서 게을러지면 주님 오시는 시간도 놓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성경에 열쳐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까지도 성경책을 읽을 때면 눈물이 흐릅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옛 기억들과 그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찬송가를 배웠던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그리움과 여러 가지 감동이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벌레와 같은 몸이다. 벌레가 땅에서 기어 다니다가 때가 되면 그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듯이 우리 몸도 아버지께

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어 천당에 가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때에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각자의 믿음으로 가야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란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넓고 평탄한 길은 가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만, 좁은 길은 진펄도 있고, 가시나 무도 있고 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단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힘든 그 길을 가다보면 그 길 끝에 우리 아버지께서 서 계시지. 그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다.”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면 그날 읽으신 말씀이나 혹은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북한 당국의 잘못된 모습이나 그 땅의 현실을 결부시켜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이 땅은 회칠한 흰 무덤과 같은 곳이다.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 볼 때는 새하얗게 칠해서 깨끗해 보이나 그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이란단다. 이 땅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할머니가 사랑하시는 성경 책과 이야기가 좋아서 귀 기울여 들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앞으로 점점 더 말씀을 보기 어려울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을 때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가 들판에 나



가 풀을 뜯어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자리에 누워 새김질을 하듯이, 앞으로는 너희들도 지금 배운 말씀을 새김질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을 때, 많이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거라.” 매일 밤 들려주신 할머니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서도 늘 잊지 않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 아는 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할머니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물으면 우리는 무조건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형제들은 무엇이든지 “모른다”가 입에 버릇처럼 붙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 굳어져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신 후로도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어른들이 예배를 보실 때 밖

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12살 되던 해 어느 날, 처음으로 할머니께서 저와 오빠를 불러 함께 예배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2년에 한 번씩 중국에서 교회 성도들께서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시던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 둘째 고모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는 그분을 ‘중국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당시에 다른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의 가족 중에는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해가 시작되고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순교하실 즈음에 할머니 가족의 목사님께서도 순교하셨고, 할머니께서는 중국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후로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살던 지역을 방문하시어 예배를 드리고 가시곤 했습니다. 중국할머니 말고도 저희 외가 식구들과 다른 친척들도 한 번씩 저희 집을 방문하여 가족모임을 하는 것처럼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에 들어갔던 날은 중국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오빠가 함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할머니는 제게 “오늘은 열매도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릴 때 새로운 찬송을 부를 것인데, 잘 배웠다가 동생들에게도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배운 찬송이 ‘하늘 가난(가느) 밝은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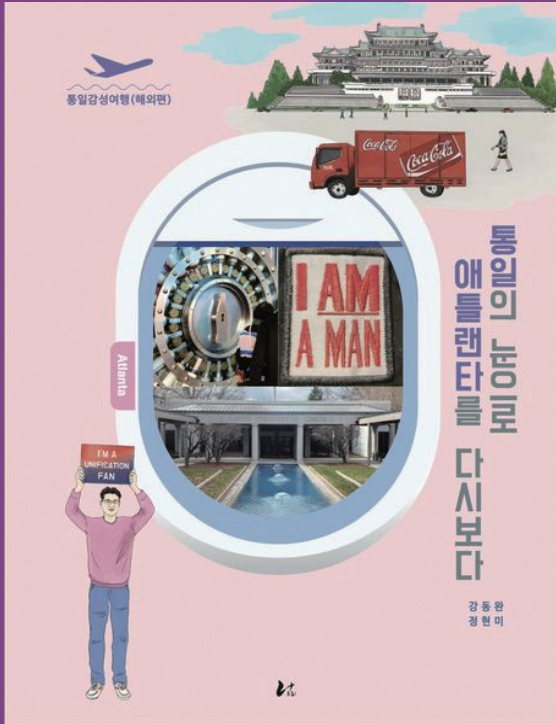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님군 우리 예수씨로다. (3절)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배우던 그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숨어서 드려야 했고 늘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했지만 부모님과 할머니가 계신 우리 가정이 바로 저의 천국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오면 보이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보시던 할머니. 작업장에 재단 톨 앞에 앉으셔서 조용히 성경을 보시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국가 농사일을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식사를 마치고 저희 형제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그제서야 어두운 전등 아래에 서서 한참을 말씀을 듣고 읽시던 어머니... 그분들의 신앙이 없었다면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겠지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할머니...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목숨 바쳐 지키신 그 신앙을 저도 후대에까지 전수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통일의 눈으로
애틀랜타를 다시 보다

저 자: 강동완

출판사: 도서출판 너나드리

발행일: 2024년 9월 24일

가 격: 21,000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잘 정리된 보고서보다도 감성을 건드리는 하나의 글귀나 상징인 경우가 종종 있다.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면 많은 이들이 너무 딱딱하게, 또 무겁게 느끼는 것 같다. 더 많은 이들에게 북한에 대해, 통일의 비전에 대해 나누고 이를 가슴에 품도록 돕기 위해서는 비록 매우 진지하고 딱딱한 주제라 할지라도 이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 ‘통일의 눈으로 애틀랜타를 다시 보다’는 그런 면에서 인상적이다. 이 책의 주제는 통일과 북한이다. 그런데 이 책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거나 북한 및 통일과 관련한 특정 분야를 고찰하는 식의 직접적인 통일과 북한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과 연관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미국 애틀랜타를 여행한 기록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통일에 대한 책이다. 참 독특하다. 이 책은 강동완 교수가 저술하고 있는 통일감성여행 답사기 시리즈

중 하나이다. 그동안 이 답사 시리즈를 통해 방문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국내에 북한과 인접한 지역들, 그리고 해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과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몽골이나 일본 등을 다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애틀랜타를 다룬 이번 책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이 책에서 방문하는 장소들은 특별히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이다. 제 1차 북핵 위기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카터 대통령에 대한 박물관이나 흑인인권 운동의 마틴루터 킹 박물관과 같이 북한과 연결점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는 방문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 그렇지만 이 책은 어디를 방문하던지 통일과 북한을 이야기한다. CNN 본사에 가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CNN의 전파를 타고 통일에 대한 뉴스가 송출되길 바라고, 히스패닉 인력시장에서 그날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이들을 보며 북한 노동자들을 떠올린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단순히 ‘북한과 통일에 대해 부담 없이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구나’ 하고 읽어나갔다. 그렇지만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통일과 북한문제의 보편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어느 곳에서나 북한을 생각하는 저자의 태도에는 감탄이 나온다. 어디에서나 통일과 북한을 생각하는 이 책의 접근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 북한 관련 서적들보다도 북한과 통일에 더욱 몰입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의 접근이 신선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저 먼 이국땅에서도 북한과 통일이 연상

되는 여러 요소들을 발견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 문제도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이슈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너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단정하고 시야를 좁혀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 아닌 반성도 해 보았다.

북한과 통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거나 어려워하는 이들에게도 편안하게 건넬만한 책,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북한과 통일을 생각하는 저자의 태도가 인상 깊었던 책, ‘통일의 눈으로 애틀랜타를 다시 보다’를 소개해본다. 

북한, 러시아 파병… 국정원 “1만 2천명 규모, 1천 500명 이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정보보안센터(SPRAVDI)가 공개한 러시아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장 영상. 북한 인력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보급품을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약 1만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미 전술 인력(tactical personnel)과 장교들을 (러시아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국가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문제”라며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극동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 군 보급품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도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SPRAVDI)는 10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히고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야, 야, 야"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10월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소식통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미국은 국정원 발표 닷새 후인 10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파병을 공식 확인했지만 최종 파병인원과 전투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참고: 관련 언론 보도 종합 )

북한, 경의선과 동해선 북쪽 일부 구간 폭파…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이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북한은 끊어진 남북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0월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작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그 일환으로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외 남북 연결 육로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화살머리고지 통로도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0월 13일 국경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 강화와 남북 연결도로 폭파 감행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10월 15일) 

북한, 개정된 헌법에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 김정은, “주권침해시 (남한에) 거침없이 물리력 사용”



〈10월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 방문 사진. 흐리게 처리된 작전 지도에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되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0월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등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연초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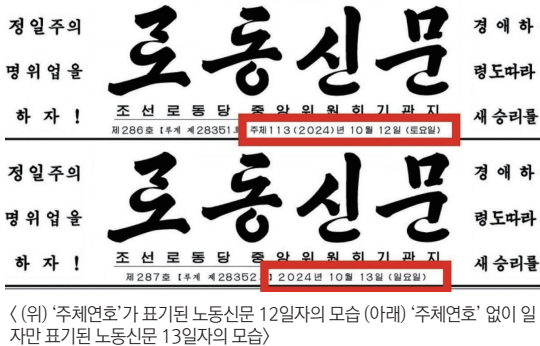
이에 따라 북한은 10월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 안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보도를 통해 밝힌 것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를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남한을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은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지도 상단에는 흐리게 처리했지만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돼 유사시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통일부는 10월 17일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하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 담화·노동신문 제호에서 ‘주체 연호’ 사용 중단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삼는 주체 연호가 지난 10월 12일 밤부터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과 담화에서 사라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10일 담화나 11일 밤 나온 외무성 중대성명에는 주체 113(2024)라고 적시됐지만, 12일 밤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는 주체 연호 없이 '2024년'이라고만 적혀있다. 이후 나온 김여정 담화와 10월 15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담화도 마찬가지로 주체 연호 없이 서기만 적시됐다.

지난 12일 오전에 발행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지면과 홈페이지의 제호에는 주체 113(2024)이라고 적시됐지만, 13일자 지면과 홈페이지에는 서기로만 표기됐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지난 12일 낮에 주체 연호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7년 7월 8일 김일성 3주기를 맞아 그가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하는 연호를 제정, 그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도입했다.

주체 연호 사용 중단에 대해 선대의 후광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넘어 자신을 독자적으로 우상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지 않았던 북한은 지난 5월 당 중앙간부학교에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김일성·김정일의 것과 나란히 걸며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6월에는 당 간부들이 김 위원장 얼굴만 새겨진 초상휘장을 착용한 채 등장한 장면이 포착됐다. (참고: 연합뉴스, 10월 17일) 

1 우리나라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채널들을 통해 북한이 1만여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태로운 행보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피흘림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러 관계 밀착 속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한 사역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러시아에 체포된 백 모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지도자상을 연출하며 우상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노력은 북한의 행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화가 강화될수록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주민들에 대한 억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도자 우상화가 중단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지하교회 적발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어림잡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붙잡힌 성도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4,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석방 촉구 성명이 있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억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5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화 난에 따른 환율 상승 및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을 명목으로 시장 대신 국가 주도의 배급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방향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압록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신의주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와 만포시 등 자강도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지에서 들려오는 수해 피해와 북한의 대응은 매우 심각합니다. 수해 복구는 수재민 지원보다도 김씨 일가 초상화나 우상화 사적지 보존이 먼저이고, 각종 세외 부담 강요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또한 수해를 입은 지역에는 생필품과 식수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모든 필요들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재민들, 특히 수해를 입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삼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 중 대다수가 원치 않는 결혼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불안 속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 현지 교회 성도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듯 본이 되는 탈북여성의 가정이 늘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탈북 여성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남편과 자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통해 제삼국과 북한의 가족들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10월 31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